李대통령 "北, 조건없이 6자회담 복귀하라"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남북 비핵화선언 지켜져야" 강조

후진타오와 한·중정상회담…북핵 문제 등 공동 노력키로

이명박(MB) 대통령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유엔총회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을 주창하고 북한에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에 대해 주요 관련국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북핵 문제 당사자로서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런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가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1992년 남북이 약속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하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북한 스스로를 위해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조문사절단을 보냈을 때 직접 만나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북한이 남북관계 협력을 원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뜻을 전해왔는데 우리도 같은 입장이란 점을 설명했다"면서 "다만 핵 문제 해결이 바로 남북관계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각국의 노력 덕분에 북핵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다"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각국이 노력한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WFP 北 쌀지원 요청 모두 거절"

민주당 김영록 의원 밝혀

WFP(세계식량계획)이 지난해 요청한 북한 식량지원 요청을 우리 정부가 무려 4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WFP 식량공여요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WFP는 2008년 3월 20일, 5월 26일, 8월 20일, 12월17일자 등 4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북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은 WFP의 공식서한에 대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년 3월 20일 조젯 시런 WFP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22일에도 WFP 토밴듀 평양사무소장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의 일환으로 WFP 북한 식량공장에서 원료로 사용될 콩, 분유, 비타민, 미네랄 등 구입비용 7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WFP는 정치적 기구가 아닌, 국제기아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식량지원 요청 거절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연이은 풍작과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를 감안한다면, 인도주의적 대북식량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대북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평동 2산단 "외국인 기업 오세요"

市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추진

광주시가 평동2산단 부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평동 2산단 부지 11만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근 지식경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기업이 목돈을 들여 부지를 분양받지 않고 비교적 싼 값에 임대할 수 있어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경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光)과 가전 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 평동 2산단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첨단 산단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애인 홀대하는 전남 지자체

광양·담양 등 17곳 생활시설 설치 안해

전남지역의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7.3%인 17곳이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전남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국회 예결위 질의자료를 통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92곳(39.7%)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7.3%인 17곳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양·담양·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었으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5곳에는 12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강원의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61.1%로 뒤를 이었고 경북 56.5%, 인천 50%, 대구 50%, 충남 43.8%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50%인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테마주 몰락이 주는 교훈

장 필 수

경제부 차장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넘나들자 주식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주식형펀드 환매(해약) 규모가 2조원을 웃돌 정도로 간접투자에서 돈을 빼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직접투자를 위한 증권사의 위탁계좌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W증권 광주지점의 김모 차장은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원금을 회복하는 펀드가 속속 출현하자 돈을 빼 직접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는 "친구가 ○○주식에 1천만원을 투자해 1억원이 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테마주 투자다. 테마주는 그때 그때 시장의 관심에 따라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테마를 형성해 급등하는 특징이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테마가 대표적이다.

순천에 본사를 둔 '파루'라는 코스닥업체는 신종플루 테마를 타고 최근 한달사이 500%가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급락하는 등 테마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파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주식 거래액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1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6천945만주로 이 회사 전체 주식의 4.4배가 거래됐고 거래액도 4천712억원으로 이날 삼성전자 거래액의 2배를 넘었다. 시가총액이 1천221배나 큰 회사보다 돈이 2배 더 몰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 들었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주가 급등의 배경은 이 회사가 손 세정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종플루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손 세정제로 인한 매출은 11억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주가급등을 이용해 회사측이 장 마감후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점도 멋 모르고 달려든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손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

주식투자의 상반된 이론 가운데 케언즈의 '미인주 이론'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론'이 있다.

미인주 이론은 주식투자는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뽑는 것과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미인보다 다수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인주 이론은 모멘텀(계기) 투자를 강조한 테마주 투자와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테마주에 편승해 적절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개와 주인론은 산책나온 주인(기업)과 개(주가)를 빗대, 개는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처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인과 함께 간다는 것으로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마음이 조급해진 투자자라면 개와 주인론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